

1950년대 전반기 전주 지역 동인지 연구

— 『남풍』, 『연비』, 『풍토』, 『풍토예술』을 중심으로 —

하 채 현(극동대) · 황 태 목(군산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전쟁기 전주 지역 동인지 양상 |
| 2. 전쟁기 전주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과 동인지 현황 | 4. 결론 |

국문초록

1950년대 전반기 전주 지역 문학 동인지는 10종을 웃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학 동인지가 발견되지 못하여 정확한 면모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본고는 먼저 전주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과 동인지 현황을 살펴 본 후, 전주 지역에서 발간된 동인지 『남풍』, 『연비』, 『풍토』, 『풍토예술』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본고는 발굴한 동인지를 통하여 1950년대 전주 지역 문학의 양상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1950년대 전주 문학의 지형도를 드러내고 향후 전주 지역 동인지 문학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후속 작업으로 본고는 1950년대 이후 전주 지역 문단을 살피고 지역 문학에 대한 온당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1950년대 전반기, 전주 지역, 문학 동인지, 남풍, 연비, 풍토, 풍토예술, 지역 문학

1. 서론

1950년대 특히 한국전쟁기는 후방의 피난지를 중심으로 문단 재편과 문학 사회의 지역 재편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 한국문학은 주요 피난지인 부산과 대구, 목포와 제주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는데, 전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전쟁기 전주에서는 신석정, 김해강, 신근(백양촌) 등이 지역 문인들과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병기, 서정주 등도 전주에 머무르며 지역의 문학 열기를 북돋우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전란 중에서도 신문, 잡지, 동인지 매체의 문학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지역문단의 재편뿐 아니라 문학 후속세대의 성장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 지역은 타 지역보다 청년 문인들의 동인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전주에서 발행된 문학동인지 매체가 10종을 훨씬 웃돌았다는 점은 1950년대 전주지역의 문학적 분위기를 잘 대변해준다.¹⁾ 특히 이들의 지속적인 문학 활동은 전주 지역문학의 성장토대로 작용하였으며 지역문학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1950년대 전주문단은 문학동인지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껏 지역문학 차원에서 1950년대 전주 지역의 동인지 활동은

-
- 1) 『전주시사』에 기록된 전주 지역 문학단체 및 동인회는 ‘문충 전북지부, 남풍동인회, 신문화동인회, 태백신문 토요일시단, 전북일보 화요문예, 국어국문학회, 전주문인회, 문인의집, 연비(燕飛)동인회, 청도(靑壽)동인회, 풍토(風土)예술동인회, 밀원(密苑)동인회, 백담(白塔)동인회, 맥랑(麥浪)시대동인회, 신영토(新領土)동인회, 원시림(原始林)동인회, 노변동인회, 지하촌동인회, 지심초동인회’ 등이며, 『전북현대문학상』에 언급된 전북문단 단체와 동인회는 ‘문충 전북지부, 남풍, 신문화, 태백신문 토요일시단, 전북일보 화요문예, 가람동인회, 신조동인회, 군산 토요일동인회, 백담동인회, 연비동인회, 밀원동인회, 이리 호남문학회, 남원 청년예술과, 전주문학회, 문인의 집, 청수동인회, 신영토동인회, 노변동인회, 전주고등학생문학회, 해병동인회, 맥랑시대동인회’ 등이다. 한편 「전북문학사」에 따르면 1950년대 전북지역의 동인은 총 27종(시14, 시조1, 시와 산문1, 종합6)이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전주시사편찬위원회 편, 『전주시사』, 1986, 전주시, 1104-1109면과 오하근, 『전북현대문학 상』, 2010, 신아출판사, 34-35면과 이운룡, 「전북지역동인지와 동인활동」, 『전북문학사』, 신아출판사, 264-270면 참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러 자료에 실린 단편적 기록이나 내용들로 미루어 동인지 문단의 면모를 짐작할 뿐이었다. 최근 들어 한국전쟁기 전주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²⁾ 1950년대 전주 지역 동인지 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1차 자료인 동인지 매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동인지별로 이름만이 거론되었을 뿐 그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탓이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전북 지역 잡지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한 잡지수집가를 방문하여 1950년대 전주에서 발간된 문학동인지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³⁾

이에 여기서는 1950년대 전반기 전주 지역에서 발간된 문학동인지의 현황과 성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동인지는 『남풍』, 『연비』, 『풍토』, 『풍토예술』이다. 이들은 1951년 11월부터 1954년 11월 사이에 발간된 것으로 한국전쟁기와 정전체제 이후 전주의 문단 상황과 문학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1950년대 전반기 전주에서 활동했던 신인과 기성문인들의 동인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당시 전주 지역 문학의 양상과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기 동인지 매체가 갖는 특성을 규명하고, 이들이 1950년대 전주 지역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미친 영향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1950년대 전반기 전주문학의 지형도를 드러내고, 향후 전주 지역 동인지 문학사 서술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최명표, 「한국전쟁기 전북 지역 매체와 문학 -〈전북일보〉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3) 자료 조사 과정에서 각종 열람, 촬영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신 서상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상진 선생님의 후의가 없었다면 이 논문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2. 전쟁기 전주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과 동인지 현황

2.1 전쟁기 전주의 매체와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

전쟁기 전주 지역의 매체 환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쟁 이전 전라북도
의 매체 환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기 전북 지역에서는 적지 않
은 신문잡지 매체가 발간되었다. 신문의 경우에는 전주에서 발간하는 『전라
신보』⁴⁾, 『전주일보』, 『전북신문』과 군산, 이리에서 발간하는 『신광일보』, 『남
선일보』, 『군산민보』, 『군산신문』, 『삼남일보』 등이 있었다.⁵⁾ 잡지 매체로는
『과량새』⁶⁾, 『전북공론』(『삼남공론』으로 개제), 『경찰공보』, 『원광』, 『전북농
민신문』(월 3회) 등이 발간되었고, 동인지 매체로는 『죽순』⁷⁾ 『태양』⁸⁾ 『비색』⁹⁾

-
- 4) 해방 이후 전주 지역 신문 계보는 『建國時報』(1945. 8. 18.)-『全北新報』(1945. 9. 12.)-『全羅民報』(1945. 10. 01.)-『南鮮民報』(1945. 11. 01.)-『全羅民報』(1946. 1. 03.)-『全羅新報』(1946. 3.)-『全北時報』(1950.2)로 체호가 이어지며, 1950년 7월 『전주일보』, 『전라신보』, 『전북신문』을 통합한 『전주시보』는 1950년 10월 10일 『전북일보』로 체호를 다시 바꾸었다.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16권, 한국역사연구회, 1995. 6, 371-372면 참조.
 - 5) 해방기 군산에서 처음 발행된 신문은 1945년 9월 20일 김관술이 창간한 『신광일보』이고 비슷한 시기에 차군향이 『남선일보』를 발간한다. 이어 1946년 5월 1일 육복술이 『군산민보』를 창간하며 서울 한성일보 사장이었던 김종량이 1947년 11월 15일 『군산신문』을 창간하게 된다.
 - 6) 1946년 2월에 김영만, 백양춘, 김목량, 김포 등이 조직한 ‘전북아동교육연구회’(후에 아동문학회로 개칭)의 아동잡지로 4호까지 전주 대양인쇄소에서 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간호는 국판 32면으로 한글 가로쓰기 편집에 동요, 동화, 역사 등 다채로운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도내 소년 소녀들의 절대적인 호응으로 도내 초등 학교, 중학교에 인기리에 배포되었다고 한다. 잡지 발간을 주도한 김영만의 회고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3호까지 내고 나서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전주시사>에는 4호까지 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아직까진 실물이 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자료는 해방기 전북지역 아동문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김영만, 『아쉬웠던 <현대>의 자진폐간, 『잡지뉴스』, 한국잡지협회, 1996. 4, 34-38면과 『전주시사』, 앞의 책, 1201면 참조.
 - 7) 전주 북공립중학교 문예부 학생들의 시, 소설, 수필, 평문 등을 묶은 비정기 문학

『거울』¹⁰⁾ 등이 전주와 이리에서 발간되었다.

한편 해방기 출판물의 경우에는 군산기독청년회, 군산민보사, 군산천주교회, 남원공립국민학교, 낭주문화사, 시조연구회, 원불교원광사, 전북공론사, 전북중학교, 전주전매국, 전주해방사, 협동문화사 등에서 다양한 문화 서적들이 간행되기도 했다.¹¹⁾ 또한 전주를 비롯하여 군산·이리·부안·남원에서 독자

회람지이다. 현재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호, 5호, 6호, 10호이다. 4호는 1947년 6월 1일, 5호는 1947년 7월 1일, 6호는 1947년 11월 1일, 10호는 1948년 12월 10일에 발간되었다. 그 가운데 타블로이드판 신문으로 인쇄된 6호를 보면 지도교사 박로선의 글 ‘페스타로찌’를 비롯하여 원고모집이라는 제목 아래 작문, 시, 산문수필, 평론, 연구논문, 소품, 기행문, 문예일기, 콩트, 유머, 단편소설 등의 투고를 환영한다는 광고가 실려 있다. 이 문예지의 발간은 이후 한국전쟁기와 1950년대 전주의 대표적 학생 문예지인 『傳統』과 『全高』로 이어졌다.

- 8) 전주사범학교 문예부 학생들의 문학 작품을 수록한 학생 문예지로 보인다. 1946년 4월 1일 등사본으로 발행되었고 편집 겸 발행인은 金亨培이다. 오영식 편 근대서지총서에 간단한 소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그 실체가 공개된 적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태양』의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오영식 편,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출판, 2009, 640면 참조.
- 9) 『전주시사』에는 장운철, 정영복, 엄유섭, 최낙인, 박준홍 등의 청년들이 1946년 이리 지역에서 발간한 문학동인지로 나와 있다. 해방기 이리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동인지 매체로 보이나 그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어 비색동인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 『전주시사』, 앞의 책, 1101면 참조.
- 10) 전북공립여자중학교 문예부 학생들의 동요, 산문 등을 묶은 학생 문예지이다. 현재 1949년 7월 10일 평화프린트사에서 발행한 3호만 전한다.
- 11) 해방기 전북 지역 출판 단체별 목록 현황

출판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도서명	편저자	출판일자	인쇄소/대표성명
群山基督青年會	박창목		어린이관송	군산기독청년회 편	1948.12.25	完-프린트
群山民報社		군산부 금동 10번지	전북인명록	육복술	1947.11.1	김용만
群山天主敎會	박문도		카톨릭성가집	강승희	1048.11.10	군산천주교회청년
남원공립국민학교	이기홍		南原誌	조성교 편	1950.5.10	해성(전주)
浪州文化社		부안읍 동중리	슬픈 牧歌	신석경	1947.7.25	
時調研究會		전주시 남계동99	雅樂譜	石菴 鄭垵兌	1950.2	한림사

적인 문학 활동이 전개되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¹²⁾ 각 지역에서 꽤나 많은 문학 매체들이 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해방기 전북의 지역문단과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던 것은 이와 같은 언론매체와 출판사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많은 지면을 제공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근대문단이 탄생하게 된다.¹³⁾

원불교원광사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	잡지 원광	李共殊 편집발행		和成堂 인쇄소
전북공론사		전주부 본정2정목 64	잡지 전북공론 1-4호	金光弼 편집발행	1946.7.1.-1946.10.10	동양인쇄사
전북중학교			신편중등한문독본	조룡승	1947.7.5	동양인쇄사
전주專賣局			朝鮮種煙草耕作法	전주전매국		
전주해방사			동양사	전북교육협회	1946	
協同文化社		전주	잡지 파랑새	김영만		

자료는 오영식 편,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앞의 책, 36-276면·582-648면에서 재구성.

- 12) 해방기 전북 문인단체의 형성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45년 8월 27일 김해강, 서정주, 이평권, 김영창, 김구진, 백양춘, 유춘 등의 발기로 ‘문화동우회’ 결성, 이후 유엽, 김창술 가세 ② 신석정의 ‘부안문화연구회’, 박상철의 ‘군산문화협회’, 이리의 문화 동호인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 전개 ③ 1946년 2월 백양춘, 김영만, 김목량, 김표 등이 ‘전북아동교육연구회’ 결성 ④ 1946년 장운철, 정영복, 엄유섭, 최낙인, 박준홍 등이 ‘비색’ 문학동인회 결성 ⑤ 1946년 5월 전북 최초의 월간 종합잡지 『전북공론』 창간 ⑥ 1947년 2월 채만식, 이병기, 신석정, 김해강, 김창술, 유엽, 김야인, 백양춘, 정우상 등의 주도로 범 지방문인단체 ‘전북문화인연맹’ 조직 ⑦ 1948년 김호연, 이병권, 박희선, 권오동, 장운철, 이병훈 등의 주도로 ‘군산문학인협회’ 결성’ 이에 대해서는 『군산시사 하』, 군산시사편찬위원회, 2000, 900면과 『전주시사』, 앞의 책, 1100-1101면과 오하근, 앞의 책, 31-32면 참고.
- 13) 전북 근대문단의 출발점은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시기 전북문단에서 작품 활동한 문인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시·수필) 김해강, 신석정, 김창술, 김목량, 장영창, 이철수, 장운철, 김세용, 박희선, 정영복, 허빈, 김영만, 장천아, 최학귀, 박목천, 엄유섭, 백양춘, 최봉규, 이병훈, 김호연, 이병권, 권오동, 신연식 등 (소설·희곡) 채만식, 김해강, 박상남, 이일민, 최낙인, 김인녕,

그러나 전쟁은 이러한 전북 지역의 매체와 문단 지형에 현저한 변모를 가져왔다. 전쟁기에 들어서면서 전북 지역은 『전북시보』를 개제한 『전북일보』와 『태백신문』과 『전북어린이신문』¹⁴⁾ 외에 잡지 『단청』¹⁵⁾ 『신문화』¹⁶⁾ 『병사월보』¹⁷⁾ 정도만이 전주에서 발행되고 있었다.¹⁸⁾ 또 전쟁을 전후하여 채만식, 김창술, 김복량, 김세웅, 정우상 등의 문인이 작고하여 문학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조건 속에서도 전북의 문인들은 이들 매체를 중심으로 문예창작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당시 『전북일보』에는 백양촌, 『태백신문』에는 신석정이 문예담당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작가들에게 일정하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다. 두 문예란에 작품을 게재한 작가 대부분이 전주와 군산의 신인들이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전북일보』와 『태백신문』

정과, 정병호, 채규심 등 (평론) 백양촌, 김수사, 장운철, 신연식, 최낙인, 김인영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양촌, 「전북문단의 개관」, 『백양촌수필전집』, 대광문화사, 1989, 285면과 『전주시사』, 위의 책, 1101-1103면 참고.

- 14) 1953년 아동교육 문학가인 김완동의 주재로 창간된 주간 신문이다. 편집에는 백양촌·김영만, 집필에는 최일남·최승열·백양촌·김완동 등으로 진용을 구성하였다. 전북일보사의 재정적 후원으로 1년여를 발간하였다. 『전주시사』, 위의 책, 1106면 참고.
- 15) 1952년 2월 전주에서 이향이 주간을 맡아 간행한 월간종합지로, 전주 문인들이 주로 집필자로 참여하였다. 전쟁기 전북 지역의 첫 잡지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가 컸으나 자금난으로 4호까지 발간하고 종간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국판 50면으로 발행되었다고 전하나 아직까진 실물이 전하지 않는 상태이다. 위의 책, 1202면 참고.
- 16) 향토문화의 새로운 전환을 목표로 1953년 10월 전주에서 발간된 문예 잡지이다. 주간은 황호만, 편집은 김영만이 맡았으며 박병순, 최승열, 박상남, 이병기, 김해강, 유엽 등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4×6배판 60면으로 창간호가 발행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2호를 못내고 종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진 실물이 전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백양촌, 앞의 책, 266면 참고.
- 17) 1951년 전북병사사금부에서 창간한 기관지로, 엄태섭과 김준일이 편집을 담당하여 15호까지 발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호마다 문인들의 작품이 게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물이 전하지 않는 상태이어서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 『전주시사』, 앞의 책, 1202면 참고.
- 18) 위 신문잡지 목록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것만 정리한 것일 뿐 누락된 언론잡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 문인을 양성하는 매체로서 기능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¹⁹⁾ 이와 관련 백양촌은 전북문단을 개관하는 자리에서 “오늘날 중앙문단에 진출한 문인들의 대부분이 이 欄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⁰⁾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들 매체의 발간은 전세기 지역 작가들의 문학 활동과 문학후속세대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동인회의 매체 발간이 두드러진 것도 주목할 점이다. 학생동인지 매체의 발간은 당시 청년문사들의 문학적 열망을 추동하면서 전주 지역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 점에서 전술한 신문잡지와 동인지 매체의 발간은 이 시기 전주 지역문학을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피난문인들의 환도 이후 지역 문학사회가 일시적인 공백 상태에 빠져든 부산과 대구와 달리²¹⁾, 전주는 이 시기에 오히려 지역 문단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만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해방기부터 지역 문단을 지켜오던 문학인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이병기와 서정주의 문단 참여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전세기 전주문학은 기성과 신인, 지역 간 연대와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문학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제부터는 이를 중심으로 전주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과 성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선배 문인들의 헌신적인 문학 활동을 들 수 있다. 특히 김해강, 신석정, 서정주, 이병기 등의 헌신적인 노력이 뚜렷하다. 이들은 전세기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후진에게 시를 가르쳤고, 지역의 문학도들과 함께 동인지 등을 편찬하면서 지역 문학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가운데 김해강은 한국전쟁기 전주사범학교와 전주고등학교에 재직하며 학생

19) 김해성, 홍석영, 이병훈, 정열, 김영협, 전재보, 최일남, 최승열, 최승범, 정구하, 강석근, 정연길, 이범욱, 허소라, 이기반, 김민성, 황길현, 유임일, 전영래, 육구영, 이상백, 송기원, 고은 등이 주로 작품을 발표했다.

20) 백양촌, 앞의 책, 286면.

21) 이순욱, 「정전 체제의 형성과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 『지역과 역사』32호, 부경역사연구소, 2014. 4, 37-66면 참조.

들의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는 등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신석정은 『태백신문』의 ‘토요시단’을 주재하면서 전쟁기 지역문단과 지역문학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한편 문충구국대 전북지부장으로 내려온 서정주는 지역 후배 시인인 이철균, 하희주 등과 함께 詩誌 『남풍』을 발간하며 문단의 빈자리를 채우는 한편 1951년에는 문필가들을 규합하여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전북지부’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다.²²⁾ 이병기가 지역문단에 적극적으로 합세하여 ‘국어문학연구회’를 이끈 것도 이즈음의 일이다. 이처럼 전쟁기 전주 문학사회는 김해강, 신석정, 서정주, 이병기 등의 문학 활동이 중심이 되었고 이들이 후학들을 지도하여 문학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당시 동인지를 통해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뒷날 중앙문단에 등단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점에서 선배 문인들의 문단 활동은 전쟁기 전주 지역문학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1948년 8월에 인가를 받은 전주 명륜학원은 1950년 4월 명륜대학으로 승격된 후 1951년 전북대학교로 개편되었고, 1951년 9월에 인가된 원광초급대학은 1953년 1월 4년제 원광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전북대학교는 1952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원광대학은 1956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개교 당시부터 국문학과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은 전북 문학의 저변확대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쟁으로 잠시 전주에 머무르던 서정주는 떠나갔지만 이병기는 전북대학교 문리대학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문단에 적극 참여했고, 1952년에는 문리과대학의 연구회잡지인 『국어문학』²³⁾을 주재하기도 했다. 이어서

22) 1951년 전주에 처음으로 결성된 문학 관련 단체는 ‘문화예술인총연합회 전북지부’이었고, 그 지부장은 서정주였다. 당시 전주에 거주하고 있던 김해강은 서정주가 전주에서 활발한 중군 활동을 한 것으로 술회하나 관련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 문충지부는 명목뿐인 단체로만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다. 김해강의 회고에 대해서는 최명표 편, 『김해강시집』, 국학자료원, 2006, 801-802면 참조.

23)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중심의 연구회잡지로, 현재 1952년 8월 1일 발행된 창간호가 전한다. 편집 겸 발행인은 국어문학연구회이며, 전주 明文社에서 인쇄하여 펴냈다. 서두에는 전북대학교 총장 김두현의 격동사와 최승범의 창간사를 실었고, 본문에는 이병기·정인승·최승범·문선규의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김해강·신석정·

1953년에는 전주문화회²⁴⁾가 이병기를 중심으로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 전주에 머무르고 있던 신석정도 전북대학 국문학과에 출강하기도 하였는데, 문리과대학생들의 동인지인 『연비』, 『청도』, 『밀원』, 『신영토』 등이 그런 와중에 출간되었다.

셋째, 학생문단의 형성과 활발한 활동이다. 초·중·고등학생 동인지 『희망』, 『옥잠화』, 『전통』²⁵⁾ 전주사범대학교 학생들의 『백담』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일종의 습작문단시대 또는 동인지문단시대라 하겠다. 이 무렵에 각급 학교 문예부 지도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예 활동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주 지역 학생 문사들의 창작 의욕을 부추기면서 전주 지역 학생문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 동인지의 면면을 보면 대체로 단명에 그치며 작품 역시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기 지

구름재·최승범·고임순의 시작품 각 1편씩과 조병선의 수필 1편을 함께 실었다. 또한 가람의 시작장지도 특설과 회칙, 본회기사, 편집후기가 뒤에 실려 있다. 『국어문학』 편집부의 이름으로 낸 ‘투고 환영’ 광고를 살펴보면 제2호(9월호) 발간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제2호가 발행되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24) 1953년 겨울 ‘역사적 현단계에 있어서 문학인에게 부과된 역사적 과업을 자각한 문학인들이 결속하여 민족문학 수립을 자부하고 지방에 있어서 문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평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발족한 문학단체이다. 회장은 이병기, 상임이사는 백양춘 이철균, 회원은 김해강, 신석정, 이철수, 박영순, 서정태, 박상남, 김영만, 최일남, 엄유섭, 하희주, 최승열, 황호만 등 15명으로 제한하였고, 당면사업으로 월간 동인지 『맥』의 발간과 시화전, 예술제 개최 등을 결의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파생되어 이후 해산 선언도 없이 자연 해체되었다. 『전주시사』, 앞의 책, 1106면 참조.

25) 『희망』은 전주사범부속국민학교 문예부의 학생 문예지로, 전주 신한프린트사에서 1951년 5월 25일 창간호를 펴냈다. 『옥잠화』는 전주성심여자중학교에서 발간한 학생 문예지로, 시·기행·소품·수필·방문기·창작들을 수록하였다. 발행주기에 연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예지는 한국전쟁 전에 창간호를 발간한 듯하나, 현재 실물로 남아 있는 8호는 1956년 12월 25일 발간된 것이다. 『전통』은 전주고등학교 문예부의 학생 문예지로, 1951년 12월 23일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서정주와 이철균이 『전통』 창간호에 시작품을 발표하여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고 있는 점이 특기하다.

역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던 학생동인 활동이라는 분명한 의의를 지닌다. 특기할 것은 이러한 매체 발간의 전통이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뒷날 『연화』, 『청맥시대』, 『맥량시대』, 『원시림』, 『전고』, 『기린봉』이 탄생하게 된다.

넷째, 지역 문인들의 수평적인 연대와 문화적 교류의 활성화이다. 기성 문인과 신인 문인이 결합한 동인지 『남풍』, 『새벽』, 『신조』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가람동인회’가 간행한 사화집 『새벽』에는 이병기를 비롯하여 김해강, 신석정, 박병순(구름재), 장순화, 백양촌 등 전국 단위의 중진과 신인이 필진으로 참여하였고, 시조동인지 『신조』 역시 지역의 신인과 기성문인들을 필진으로 포함시킨 데서 이 동인지의 수평적인 연대 의식을 살필 수 있다. 전쟁기에 열린 시화전이나 문화교류 행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북 지역의 문인들은 1952년 4월 전북 최초의 시화전을 비롯하여 전주, 군산, 이리, 남원을 순회하는 시화전을 열기도 하였고 광주전남 지역의 시인들과 합동 시화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²⁶⁾ 또한 광주전남 지역의 작가들과 11인 문집²⁷⁾을 발행하는 등 문학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문화적인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쟁기 전북 문학은 지역 문학의 한계를 뛰어 넘어 호남으로 지역 문단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다,

26) 이동순, 「광주전남 지역 근현대 시문단 형성사 연구 1」, 『현대문학이론연구』 5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362-367면 참조.

27) 1953년 10월 5일 목포 항도출판사 발행한 『시와 산문』에는 호남 문인 11인의 작품 39편(시 28편, 산문 1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전북 문인으로서는 이병기, 신석정, 서정주, 김해강, 백양촌 등이 참여하였다.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병기 : 눈(시)/산문(시의 진리), 신석정 : 서정소곡 · 망향의 노래 · 발음(시)/뽕을 치기(산문), 서정주 : 무등을 보며 · 꿈(시)/상리과수원(산문), 김현승 : 자화상 · 화사집(시)/무등산(산문), 김해강 : 청산 호집 · 백야행 · 희망의 노래(시)/산 유감(산문), 박흡 : 모래 · 사막 · 우렁(시)/나와 화초 · 하강(산문), 이동주 : 바다 · 연륜 · 들국화(시)/가을의 우수(산문), 박정은 : 파아란 하늘이 있다 · 남쪽에 · 순이(시)/이사한 뒤(산문), 김약 : 아우에게 · 함께 가는 길(시), 백양촌 : 연가 · 4월 · 회원(시)/목가와 생활(산문), 이석봉 : 파란 꽃 한 송이 · 국화 꺾으며 · 가을(시)/귀향기(산문)’

2.2. 분석 대상 동인지 현황과 특징

다음으로 1950년대 전반기 전주에서 나온 『남풍』, 『연비』, 『풍토』, 『풍토 예술』 동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현재 확보된 동인지들의 면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南風』 1집은 이철균이 편집과 발행인을 맡아 간행한 동인지로, 1951년 11월 7일 전주의 杞山堂에서 인쇄되어 발간되었다. 동인은 이철균²⁸⁾, 서정주, 은안기, 김교선²⁹⁾, 하희주³⁰⁾, 김종빈 등 6명으로 구성되었다. 『南風』 1집의 작가별 작품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28) 이철균(李轍均, 1927~1987)은 전주 출신으로 호는 유인(有人)이다. 전주 북중 일본외세대대학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문태고, 전주고 등에서 교편을 잡았고 전쟁기 『남풍』의 발간을 주도하였다. 1953년 『문예』에 시 「염원」, 「한낮에」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주요 작품으로 「정거장 부근에서」 「낙엽풍경」 「살인자」 「설화」 「무등초」 「종달새」 등이 있고 사후에 유고시집 『신즉물시초』가 간행되었다. 오하근, 『전북현대문학 상』, 앞의 책, 35면 참조.
- 29) 김교선(金敎善, 1912~2006)은 함경남도 함주군(咸州郡) 상조양면(上朝陽面) 출생으로 함흥고보를 거쳐 1939년 일본 도쿄 호세이대학(法政大學) 법문학부 문학과를 졸업하고 귀국, 1954년까지 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전쟁기 『남풍』 동인으로 활약했고, 1962년 2월 평론 「불안문학의 계보와 이상(李箱)」을 『현대문학』에 발표하면서부터 문단 활동을 시작했다. 1974년부터 전북대학교 문리대 교수와 전주대 인문대 교수를 역임했다.
- 30) 하희주(河喜珠, 1926~2004)는 전주 출생으로 전주북중을 졸업하고 국어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험생의 필독서인 『고문 교실』을 비롯 『국문법 교실』 『바른말 바른글』을 지어 명성을 얻었다. 전쟁기 『남풍』 동인으로 활동했고 1958년 『현대문학』에 「바람의 노래」 등이 서정주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다. 주요 작품에 「어부사」 「자화상」 「산무리」 「꽃 소리」 「두루미」 등이 있고 시집으로 『자화상』이 있다. 오하근, 앞의 책, 37면 참조.

<표 1> 『남풍』 작가와 작품 목록

작가	작품 제목	비고
서정주	태산목련송 / 소품초	시
은안기	고원풍경1 국화 / 고원풍경2 낙엽 / 고원풍경3 선퇴	시
이철균	염원 / 낙과 / 하늘 / 선방	시
김교선	새꽃	시
하희주	구름 노래에 맞추어 / 산옹	시
김종빈	괴-테의 눈	번역

『남풍』 1집에 발표된 작품은 총 13편이다. 이 중에서 번역이 1편이므로 시 작품은 12편인 셈이다. 작가별 시 작품 편수를 일별해 보면 서정주 2편, 은안기 3편, 이철균 4편, 김교선 1편, 하희주는 2편을 발표하고 있다. 이철균이 가장 많은 5편을 발표하였고 그 다음으로 왕년의 시인 은안기가 3편을 발표하였다. 외국 작품도 번역하여 실고 있는데 김종빈이 번역한 「괴테의 눈」이 실려 있고, 또한 서정주의 「드리는 말씀」과 이철균의 편집후기를 앞뒤로 실었다. 창간에 참여했던 서정주와 이철균에 의하면 『남풍』은 문학동인지로 출발하였다.

詩를 하는 일을 한 生命의 淨化 또는 그 發展의 繼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말로 詩를 쓰는 일을 한 練習이라고 생각하는 湖南의 몇몇 글짓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 조그만 冊을 두 달 만에 한 卷씩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冊題를 「南風」이라 한 것은 그 生長의 便인 薰薰하고 多情하고 知慧로운 느낌을 取하였으며 또 한 쪽으론 이 冊이 主로 湖南 사람들의 일이라는 뜻도 包含시키고저 한 때문입니다.³¹⁾

同人들끼리나마 모여 「南風」에서 生活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戰亂의 渦中에 서서 제 각기 느끼는 것들을 모아 보았

31) 서정주, 「드리는 말씀」, 『남풍』 1집, 기산당, 1951, 1면. 이하 『남풍』 인용은 본문에서 작가와 작품, 인용 면수를 밝히는 것으로 대체한다.

으나 紙面의 가난과 連絡關係로 單調한 리듬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廷太兄과 範三兄. 다음 號에는 아담한 모습들을 보여줄 줄 압니다. 湖南의 새 詩友에 渴症이 납니다. 자라가는 詩人들의 많은 投稿 바랍니다.(이철균, 「편집후기」, 20번)

서정주의 글을 보면 호남(전북) 지역에서 활동 중이었던 몇몇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詩誌를 두 달에 한 권씩 발간하기로 합의하였고 호남 문학인들의 활동을 강조하기 위하여 『남풍』으로 명명하게 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남풍』은 창간 당시부터 지역적인 특성을 담아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철균이 쓴 1집의 편집후기를 보면 전쟁기 지역문학에 대한 고민을 확인할 수 있다. 편집후기에서 확인되었듯이 ‘지면의 가난과 연락관계로’ 서정태와 김병삼 등이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다는 데서 전쟁기 지역문학의 활로와 확장에 대한 고민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뒤 이렇다 할 동인 활동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남풍』은 창간호를 낸 이후 발간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³²⁾ 동인지 발간이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경제적인 사정과 개개인의 문단활동이 한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燕飛同人詩集』은 이기반³³⁾이 편집을 맡고 전영환이 발행을 맡아 간행한 본격적인 시동인지로, 1952년 12월 5일 전주의 和世프린트사에서 등사본으로 발간되었다. 동인은 정남수, 천이두³⁴⁾, 정종진, 하동약, 김병인, 전영환, 이기

32) 1966년 이리에서 최학규, 박항식, 조두현, 이병훈, 이종원, 김인태, 남형우, 이병기, 송하선, 유근조, 정양, 이일미 등이 시문학동인회를 만들고 동인지 『남풍』을 간행하기도 했다. 동일한 제호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는 전쟁기 『남풍』을 계승하고자 한 의지로 보이나 참여 동인이나 발간 연대만 보아서도 맥이 다른 동인지라고도 볼 수 있다. 추후 비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33) 이기반(李基班, 1931~)은 전북 완주군 출생으로 호는 월촌(月村)이다. 1950년대 초반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문학 서클인 연비동인으로 활동하였고 1957년 시집 『두 날개』를 발간했다. 1959년 『자문문학』에 시 「설화」, 「말없는 반항」이 추천되어 등단했고 1961년 『삼남일보』 신춘문예에 시조가 당선되기도 하였다.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반, 은영상, 조두현³⁵⁾, 이승기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작가별 시작품 편수를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비』 작가와 작품 목록

작가	작품 제목	비고
천이두	자학 / 우수 / 밤의 노래 / 자연(紫煙)-자주빛 연기 / 어느 정원	등사본/ 시
정종진	봄 / 시절	
하동악	패수장 / 바람길 / 성하촌 / 잔명 / 방	
김병인	날개	
전영환	향수 / 벗의 무덤 / 역경 / 고개를 넘으며 / 태양과 더불어 살면 / 농우야	
이기반	석고-우지않는 목줄기 / 눈 / 지월(地月) / 무제 / 기적(汽笛)	
정남수	반계정의 봄 / 무보(춤추는발걸음)	
은영상	미녀	
조두현	장구하일 / 슬픈 여인 / 별레소리 / 오빠소식 / 청운 / 거리	
이승기	자화상 / 역두에서	

『연비』 동인시집에 발표된 시는 총 35편이다. 조두현 6편, 전영환 5편, 이기반 5편, 하동악 5편, 천이두 5편, 정종진 2편, 정남수 2편, 이승기 2편, 은영상 1편, 김병인 1편씩을 발표하고 있다. 조두현이 가장 많은 6편을 발표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영환과 이기반과 하동악과 천이두가 5편을 발표하였다. 연비동인회는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아마추어 문사들이 결집한 시문학동

34) 천이두(千二斗, 1929~2017)는 남원 출생으로 1950년 남원농업중학교 5학년을 수료하고 1955년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연비동인으로 활동하였고 1959년 『현대문학』에 고독과 산문,이 추천되어 문단에 데뷔한 뒤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했다. 이리남성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1978년부터 원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35) 조두현(曹斗絃, 1925~1989)은 완주 출생으로 호는 권정(權丁)이다.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시 연비동인으로 활동했고, 1958년 『현대문학』에 「한시신역」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시집으로 『어느 문 밖에서』, 『증언』, 『책장을 넘기다가』 등이 있다. 오하근, 앞의 책, 40면 참조.

인지 매체로 보인다. 편집을 주도했던 이기만이 ‘이병기와 신석정의 지도를 받았음을 서문에 밝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창간호를 낸 이후 연비동인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³⁶⁾

『風土』는 전주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시동인지로, 현재 1집과 2집이 실물로 남아있다. 1집은 1953년 12월 20일 발간되었는데, 대표저자는 김영채, 편집자는 김해성, 인쇄자로는 최용기가 이름을 올렸다. 1집에 참여한 동인은 김영채, 곽우중, 최규완, 문종설, 채만묵³⁷⁾, 임영률, 윤 군호, 김해성³⁸⁾ 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 2집은 1954년 11월 25일 전북교육주보사에서 펴냈고, 김해성이 대표저자 겸 편집자로 이름을 올렸다. 2집에는 김해성, 서병용, 이복술, 장성원, 김려수, 신찬균, 김장령, 황병용이 동인으로 참가함으로써 모두 8명으로 구성되었다. 작가별 시작품 편수를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풍토』 1집·2집 작가와 작품 목록

작가	1집 작품 제목	2집 작품 제목	비고
김해성	미륵/ 염원 / 낙조	유월 / 우상 / 청산서정	시
김영채	산길 / 오월의 노래 / 슬픈 대양		
곽우중	눈물		
최규완	어린 거지 / 심장 / 생		
문종설	경(거울경) / 후조 /		

36) 『전북문단 70년사』에는 동인지가 3호까지 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아직까진 실물이 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안도·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 편, 『전북문단 70년사(1945-2015)』, 신아출판사, 2016, 551면 참조.

37) 채만묵(蔡滿默, 1935~)은 전북 부안 출생으로 전쟁기 전주고를 나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 학창 시절 풍토동인, 청도동인으로 활동했으며 대학원 진학 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38) 김해성(金海星, 1935~)은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쟁기 전주고를 나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 학창 시절 풍토동인, 풍토예술동인으로 활동했으며 1956년 『자유문학』에 시 「신라금관」, 「밭」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대불대학교 인문사회대 문예홍보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시드러가는 꽃잎		
채만목	산유화 . 산골물 / 새벽	
임영률	어메 / 어머니의 보선짚 / 길	
윤균호	무제 / 애사 / 구름저편	
서병용		구원 / 내정이
이복술		희원 / 황혼
장성원		노을 / 밤
김려수		산장 / 허무 / 소녀와 밀림
신찬균		황혼 / 내일 / 연륜
김장령		과문 / 풍경 / 추억의 봄
황병용		해변 / 불상 / 이슬

『풍토』 1집에 발표된 시는 총 22편이다. 김해성 3편, 김영채 3편, 박우중 1편, 최규완 3편, 문중설 3편, 채만목 3편, 임영률 3편, 윤균호 3편씩을 발표하고 있고, 신석정의 「서문」과 백양촌의 「발문」을 함께 실었다. 『풍토』 2집에 발표된 시는 총 21편이다. 김해성·김려수·신찬균·김장령·황병용은 3편씩을 발표하였고, 서병용·이복술·장성원은 2편씩을 실었다. 『풍토』 1집과 2집의 편집을 맡았던 김해성은 당시 이미 개인시집 『해몽』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실린 시들은 정전 체제 이후 전주 지역의 문학사회 지형과 학생문단 상황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風土藝術』은 전주사범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시동인지로, 1954년 9월 1일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김해성, 이규태³⁹⁾, 이봉섭⁴⁰⁾, 이일남, 소재중, 김병인, 최세훈⁴¹⁾이 동인으로 참여하였다. 작가별 시작품 편수를 일별

39) 이규태(李圭泰, 1933~2006)는 전북 장수 출생으로 전쟁기 전주사범대학에 입학하여 백담동인과 풍토예술동인으로 활동했으며 1959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문화부, 사회부, 편집부 기사를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40) 이봉섭은 전쟁기 전주사범대학에 입학하여 백담동인과 풍토예술동인으로 활동했으며 1956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진출하였다. 전북일보 논설위원과 전북예총 회장을 역임했다.

41) 최세훈(崔世勳, 1934~1984)은 전북 김제군 죽산면 출생으로 전쟁기 전주사범대학에 입학하여 풍토예술동인으로 활약하였고 1954년 이리방송국 아나운서로

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풍토예술』 작가와 작품 목록

작가	작품 제목	비고
이봉섭	여백의 풍속	시
김해성	코스모스	
이일남	꽃잎	
소재중	선인장	
김병인	탈피	
이규태	숲속에서	
최세훈	사바기행	미완

『풍토예술』 창간호에 발표된 시는 총 7편이다. 이봉섭, 김해성, 이일남, 소재중, 김병인, 이규태, 최세훈이 각 1편씩의 시작품을 실었다. 여기에 실린 시들은 대체로 신진 문학도 특유의 실험 정신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동인들 가운데 이봉섭과 이규태는 이전에 문학 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백담동인회⁴²⁾가 해체되면서 풍토예술동인회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비동인이었던 김병인과 풍토동인이었던 김해성의 참여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호가 발간되었는지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남풍』, 『연비』, 『풍토』, 『풍토예술』 동인지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풍』과 『연비 동인시집』은 한국전쟁의 와중에 전주에서 발간된 동인지 매체이고, 『풍토』 1·2집과 『풍토예술』은 정전 체제 이후에 발간된 동인지 매체이다. 이 시기

입사한 뒤에는 언론인으로 꾸준히 활동하였다. 1962년 『자유문학』 추천을 거쳐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했다.

42) 전쟁기 전주사범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문학동인회로, 최일남·이범욱·이봉섭·이규태·이성우·김중준 등이 참여하여 1951년 동인지 『백담』을 발간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시사』, 앞의 책, 1109면 참조.

동인지 매체는 두 가지 경향이 존재한다. 기성과 신인이 수평적, 수직적 연대를 추구한 『남풍』과 학생들이 수평적으로 결합한 『연비』, 『풍토』, 『풍토예술』이 그것이다. 이들 동인지는 뚜렷한 매체이념을 표방하거나 기존 문단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풍』과 『풍토』의 서문에서 알 수 있는 바, 지역문학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문학을 수립하기 위하여 애쓴 고투의 흔적이 작품에 집약되어 있었다. 이들의 창작 활동은 전쟁기의 지배 담론이었던 반공주의·애국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순문학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전주문단의 중심체가 되어 주었던 서정주, 이병기, 신석정, 김해강 등 선배 문인들의 창작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1950년대 전반기 전주 지역 학생동인지는 비록 지속적으로 매체를 발간하지는 못했지만 전북문학사에서 문학후속세대들의 등장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문학적 다양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3. 전쟁기 전주 지역 동인지 양상

3.1 동인지별 작품의 특징 비교

전쟁기 전주 지역 동인지는 전문 작가 동인지와 학생 문예지로 구분된다. 전문 작가의 동인지는 기성 작가들이 모여 만든 『남풍』이다. 『연비』, 『풍토예술』은 각각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동인지와 전주사범대학교 학생 동인지로 아마추어 문사들이 모여 엮은 시집이다. 『풍토예술』이 국어문학연구회와 연관되어 있고 『연비』가 가람 이병기와 신석정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연비』는 ‘시를 體得하려고 공부하는 우리들이 理論과의 距離를’⁴³⁾ 좁혀보려고 엮었다고 밝힌 점에서 문학 연구자들이 주요 멤버임을 알

43) 편집자 저, 「서(序)」, 『연비동인지집』, 1952, 1면.

수 있다.

신석정과 백양촌의 師司를 받은 『풍토』는 전주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시동인지다. 이미 김해성이 시집 『海夢』을 엮어낸 것으로 보아 수준급의 시 창작에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인시집의 제호를 만든 백양촌은 시가 배양되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풍토를 만들 것을 동인들에게 당부하였다.⁴⁴⁾ 이와 함께 신석정이 이들에게 거는 기대는 진지함을 넘어 사명감을 불러 일으킬만하다. 신석정은 시인의 소명, 시의 (새로운) 정의, 시 창작방법을 재기하였는데 시를 정신의 불꽃이라고 한 후 ‘개화를 위하여 아예 안일한 행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詩人이 發見한 그리고 發見하면서 있는美는 바로眞理로 通하는길이다
眞理를 爲해서 生命을바친 사람이 많다 그러나 眞理를 爲해서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聖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에
詩는 모든 藝術의 出發이오 또 歸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明日의詩를爲해서 太陽보다 大膽하고 역센出發을 敢行하라

오늘의詩가 어제의 詩의位置를 占領하드시 明日의詩는 오늘의 詩의領土를 占領하는데 그意義가 있으리라 새로운 「風土」의 住民이된 그대들은 詩를 위해서는 殘忍한 帝國主義者가 되어도좋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詩의領土를 擴張하라⁴⁵⁾

서문(序文)에서 신석정은 ‘시를 위하여 잔인한 제국주의자가 되어도 좋다’고 강력히 말한다. 시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은 진리를 위하여 사는 성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태양보다 대범하게 출발하라고 한다. 한 편의 연설문을 연

44) 백양촌, 「고운 시생명의 원류」, 『풍토』, 1953, 58면 참조.

45) 신석정, 「“풍토”의 머리에」 중에서, 『풍토』 1집, 1953, 2면. 텍스트 인용은 수록 당시 동인지 표기를 따른다.

상케 하는 신석정의 서문은 풍토 동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신석정과 백양촌이 『풍토』 동인들에게 보인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인지의 서문 내용을 직접 검토하는 일이 소중하다. 그동안 다양한 접근과 논란 속에서 지역 문학사 기술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 고민해야 한다. 동인지 명과 간략한 활동 소개만으로 동인 문단의 전모를 살필 수 없다. 그동안 침묵했던 지역 문학의 지형도를 그리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지형도에 더하여 텍스트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의 수준과 성향을 밝혀야⁴⁶⁾ 지역 문단의 양상을 제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텍스트 안에서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래 구체적인 텍스트 하나를 전문 제시한다. 김교선의 아름다운 작품이다.

물 많은 배 하나만 먹고 싶다고, 그말 한마디 그렇게도 생생히 남겨 놓고
順이는 목마른 채 눈을 감았습니다. 順의 엄마는 세 날 세 밤을 통곡하다가
복덕 어매 권에 못 이겨 팻죽물에 목구멍을 추기고 있는데, 이웃집 이쁜 어
미 三年前 죽은 딸년 설움에 눈물을 씻고…….

울 밑에 봉선화 나날이 붉어 새 꽃 또 하나 더 피었습니다.⁴⁷⁾

인용한 시 「새 꽃」은 수준 높은 산문시의 경지를 보인다. 새로 피어난 봉선화와 굽주림에 죽은 어린 딸을 연결한 은유는 딸의 안타까운 죽음에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짙은 묘사를 통하여 구체성을 얻었다. 『남풍』은 기성 작가들의 동인지이며 수준급의 비유와 어휘로 피난 문학의 특징⁴⁸⁾을 드러내었다. 『남풍』에는 피난민의 현실과 그 안에서 순수 예술을 지키는 자의 고단함

46) 이와 같은 논의는 송기섭(2015)에도 들어 있다. 지역 문단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데 정말 지역 창작 작품이 어떠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47) 김교선, 「새 꽃」, 『남풍』, 1951, 17면.

48) 이철권의 「하늘」에는 詩語 ‘주검’이 등장하여 생과 死의 갈림길에 놓인 전쟁 시기 문학임을 알게 한다.

이 섞여 있다.

신인작가들의 동인지인 『풍토예술』은 일곱 시인의 일곱 시편을 담았다. 첫 시 이봉섭의 「餘白의 風俗」은 무한과 유한을 넘나드는 생명의식을 표방했다. 이 동인지는 20대의 신인작가 동인지답게 과감한 실험을 시의식과 결합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남풍』의 시편이 가진 안정감을 깨고 새로운 과격시의 세계를 열기에 적합하다. 특히 여러 지면(21-26면)을 할애하여 실은 최세훈의 시 「사바기행」은 눈여겨볼만하다. 이 시는 먼저 날짜를 달아서 일기 형식을 빌렸다. '1953년 12월 31일/지금 해오의 눈물로 볼 적서야 할 시간.../나는 아직껏 스스로 판 墓穴속에서 어둠을 파먹고 있다'. 이러한 시 표현은 『풍토예술』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감수성이기도 하다. 젊은 작가의 혈기와 시적 실험이 돋보인다.

『연비』는 여러 특징적 면모를 보여준다. 등사본이어서 筆耕士⁴⁹⁾의 글씨로 되어 있으며 10명의 시인이 참여하여 시 35편을 실었다. 시의 양이 많아서 다른 동인지에 비해서 비교적 다양한 시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시달리든 歷史이기에
아직도 푸르른 내이마에
疲勞한 良心이 잔주름을 그었고

背脊당한 사랑과
骸骨처럼 말라빠진 眞實이
이처럼 턱밑에 쑥대발을 마련했오

-激憤한 青春에

末練을 반추하는 감미한 서정이며
여겨웁도록 기다리든 그지없는 所望이

49) 문서나 책 등에 글씨를 쓰는 일이 직업인 사람을 筆耕士 혹은 筆耕工이라고 한다. 지금은 없어진 직업으로 이들은 철필을 가지고 글씨를 새겨서 등사했다.

부풀었던 血管을 비틀어 찢으⁵⁰⁾

위 시는 말뚝처럼 서 있는 피로하고 말라빠진 청춘을 드러낸다. 강렬한 자기혐오는 ‘창 앞에 주저 앉았기 여거워 얼굴도 씻지 못한채 이 피동이 어 린이를 사바에 내놓은⁵¹⁾ 행위여서 거칠다. 하지만 전쟁기 ‘선혈의 장마 속’에 갑갑한 현실을 벗어나 ‘힘찬 심장⁵²⁾을 연 쾌기가 반갑다. 『연비』는 詩로 만난 벗들 중 천이두, 하동악, 전영환, 이기반, 남두현 등이 여러 편의 창작물을 선보였다. 이기반의 시처럼 난해한 측면이 강한 작품이 있고 남두현의 시처럼 어린 여성 화자를 내세운 쉽게 읽을 수 있는 작품들도 있다. 『풍토예술』의 시편처럼 강렬한 실험 시와 평화를 갈구하는 서정적인 시가 섞여 있어 다채롭다.

전쟁 직후 발간된 『풍토』 1집과 2집은 연장선에 있다. 김해성이 두 동인 시집에 들어 있다. 그러나 다른 시편은 겹치는 시인이 없다.⁵³⁾ 시간적 공백 1년을 감안하더라도 보통의 동인지와 다르게 동인 작가가 겹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연비』와 『풍토예술』이 젊은 신인들의 잔치였다면 『풍토』는 10대였을 학생들의 시 모음집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고등학교 학생문예지답게 자연을 예찬하는 시와 일종의 실험을 감행한 長詩가 포함되어 있다. 독자에게 훨씬 매력적인 것은 『풍토』다. 담긴 시편들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수준급이면서 안정적이다. 그러면서도 신선미를 갖추고 있다. 신석정과 백양촌의 시 정신에 대한 갈급이 『풍토』 작가들의 시편에 스며들어 있다.

이상의 각 동인지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토대로 분석 대상 동인지에 실린 작품들의 공통점을 추려볼 수 있다. 첫째, 순수문학 지향이다. 서정주가 생명 의식의 발로를 강력히 드러내었고⁵⁴⁾ 신석정이 시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강

50) 이승기, 「自畫像」 중에서, 『燕飛同人詩集』, 1952, 69-70면.

51) 전영환, 「편집후기」, 위의 책, 74면 참조.

52) 『연비』의 편집자 이기반이 쓴 「序」를 참조하여 인용자가 기술하였다. ‘ ’가 이기반이 사용한 어휘다.

53) 본고의 2장 참조.

조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전쟁 시기 현실에 대한 재현이 어느 정도 불가능했을 수 있다. 자연에 대한 탐색과 자연을 닮으려는 시 정신의 추구가 동인 시인들의 공통점으로 거론할 만하다. 『남풍』에 담긴 詩題는 물론이거니와 『풍토예술』에서 「코스모스」, 「꽃잎」 등, 『풍토』의 여러 시편들이 (비통한) 현실에 눈감고 차라리 자연을 회귀하였다.

둘째, 도회적 문명 감각⁵⁵⁾이다. 시의 체제에서 향토적인 정서와 관련된 시편은 전영환의 「農牛야」가 유일하다. 그 밖의 시편들이 모두 도회적이다. 기차, 거울, 驛, 정원, 地球, 밀림, 해변, 風景 등 세련된 도시 감각으로 충만하다. 이러한 근대적 문명 감각은 당시 현대시가 지향하는 바였을 것이다. 생활을 벗어나 시인들이 추구하는 希願의 세계는 추상적,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시를 쓰는 일과 현실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다.⁵⁶⁾

마지막, 불교적 세계관과 초월 의지다. 시의 精髓에 다다르고자 분석대상 동인지 시편들이 발견한 세계는 불교인 듯하다. 황병용 「불상」, 김해성 「미륵」, 최세훈 「사바기행」, 이철균 「산방」, 서정주 「태산목련송」 등이 불교적 세계관에 침윤되어 있다. 불교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詩語 「먼지」, 「구름」, 「서쪽(녘)」 「蓮」 등이 반복되었다. 동인 시편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전쟁의 폐허와 고통 속에서 불교 세계가 설파하는 ‘내세’는 유일한 출구였을 수 있다. 전쟁 직후 이성과 합리가 보이지 않을 때 자꾸만センチ멘탈해지는 시 세계에 이들이 붙든 불교적 세계는 예술로 가는 가능성이었다.

위에 설파한 동인 작품들의 특징은 ‘경향’이지 주류로 단언하기 힘들다. 『

54) 서정주의 시 두 편이 생명의식을 피력했을 뿐 아니라 『남풍』의 서문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자잘한 입사귀들이 韓國의 제반 生命 營爲의 基盤에 어긋나지 않고자 하는 점입니다’라고 하여 생명 영위를 강조하였다.

55) 여기서 도시적 감수성과 약간의 계몽의식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56) 허정석은 동인지의 끝머리 「餘墨」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風土藝術』을 꾸며보겠다는 意欲이 생겼습니다만 現實은 이것 저것 바란스를 잡아야만 하게 만들기만 했습니다.’ 예술을 한다는 것이 현실에 매이게 되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고뇌는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백양촌도 『풍토』 1집의 발문에서 시인들이 세속적인 넓은 길을 버리고 ‘굳이 이 땅에선 너무도 푸대접받는 외롭고 조촐한 文學의 길’을 택했다고 표현하였다.

남풍』을 제외하고 대부분 젊은 아마추어 문사들이어서 작품의 특성을 개괄하여 묶어낼 수 없다. 다만 우리가 1950년대 시단이라고 할 때 피난 문단의 성격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분석 대상 동인 작품들에서 다른 특징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피력해 본다. 거칠고 실험적일망정 수준과 창작 기법이 시 정신에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이러한 텍스트가 이 땅에서 창작될 수 있었던 토대는 신석정과 서정주 등의 선배 문인들의 영향 덕분임은 말할 것도 없다.

3.2 주요 작가의 작품 경향 분석

현재까지 발굴된 전쟁기 전주 지역 동인 활동 멤버는 통틀어 35명이다. 이들 중 본고의 분석 작가는 분석 대상 동인지에 겹치는 작가로 김해성과 김병인이다. 이 두 작가는 전쟁기 전주 지역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했다. 김해성은 『풍토』 발행인으로 『풍토』에 「미륵」, 「염원」, 「낙조」를, 『풍토』 2집에 「유월」, 「우상」, 「청산서정」을, 『풍토예술』에 「코스모스」를 게재했다.⁵⁷⁾ 김병인은 『연비』에 「날개」를, 『풍토예술』에 「탈피」를 실었다.

김병인의 시 세계는 자기 환멸을 지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환멸을 속속들이 경험해야만 다음이 있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껍질을 벗어……

껍질을 벗어……

辱된 世上에 罪도곤 어려운 고비를

살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歲月두고 간직한

57) 김해성이 묶었다는 개인 시집 『海夢』을 읽을 수 있다면 더 적합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투박한 모습을 벗어
햇별을 받아
그렇게도 반가운 햇별을 받아

혹은
어린 살결을 가다듬으라 했습니다.⁵⁸⁾

시인의 발은 아둔하고 투박한 모습으로 생사의 뒀안길을 더듬고 있다. 그렇지만 질병과 죽음의 비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까닭이 있다고 강조한다. 별과 햇별은 시인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살결을 가다듬게 한다. 김병인은 궁거운 생으로부터 시를 통해 출구를 찾았음을 기쁘게 전한다. 김병인의 기쁨은 자연스럽다기보다 처절하다.

김해성의 시 세계는 영롱한 세레나데다. 시공을 초월하여 戀慕의 情을 품었다. 미륵 불상, 유월, 코스모스, 노을이 모두 김해성에게 슬픈 사랑 노래를 부르게 한다.

유월은 내마음의 여왕
빛나지 않는 슬픔을 가슴에 품은채

청제비 날개끝에 연분홍 봄날을
버리고 돌아온 思戀……

호박꽃 웃는 울넌어로 넌즈시 띄워나 보련다⁵⁹⁾

시인이 유월을 노래하는 이유는 봄날의 연애를 버리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여 사랑 노래를 유월에 다시 띄워 보려고 한다. 연모를 품은 김해성의 시는 청춘이 뿜어내는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를 다독인다. 「염원」, 「청산서정」,

58) 김병인, 「脫皮」, 전 6연 중 뒤 4연

59) 김해성, 「유월」, 전 7연 중 뒤 3연

「미륵」에서 김해성은 ‘벽찬 청춘을 노래’하고 ‘숭고하게 살기’를 다짐한다. 목가적 세계(목동의 피리가락, 목장, 청산)와 불교적 세계(두견새, 부엉이, 미륵불) 안에서 김해성은 이상인 ‘희’와 아름다운 ‘順이’를 찬양한다.

김병인과 김해성의 시 세계는 전쟁의 폭력 앞에 놓인 시 정신의 활로를 개척하였다. 두 작가의 천재적 기질을 차치하고라도 당시 전주 지역 시 창작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1950년대 전반기 동인지를 통하여 정세의 난관 속에서 김병인의 ‘날개’와 ‘허물 벗음’이 가지는 의미를 가늠할 수 있거니와 김해성의 ‘청춘예찬’과 ‘연모’가 전주 지역 문학예술인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 작가는 본고의 의도에 의한다. 본고는 1950년대 한국 문단의 지형도에서 전주 지역 문학인의 행보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쟁 시기 한국 문단의 빈틈을 메우고 전쟁기 문학인들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이와 같은 의도에서 최규완의 시편과 하동약의 시편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작가의 시들은 전쟁 시기 전주 지역의 시 세계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피난 문단 형성에 기여할 만하다.

최규완의 시 세계는 전쟁의 아픔을 보여준다. 삶과 죽음이 눈앞에 널브러져 있으며 절망적이다.

億劫도 푸른 물 속 위에
惡魔의 숨결이 일면
이즈러진 달마저
서럽게 사라지는 밤이었읍니다

거짓과
악함과
추함과
그리고 속됨이
이 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우면 달빛에 젖던
떠얼며 검은 흙탕물에 몸을 맡기는
蓮이파리 풀잎들 사이
힘없이 와 몸을 기대는 毒蛇며, 蠅蟲의 무리들

밤은 깊어

하루사리 生命들은 잠들고
이 밤은 나의 肉身을 녹여 흐릅니다
소리없이 다만
뛰는 心臟이 있을 뿐입니다⁶⁰⁾

달마저 사라진 밤이다. 거짓, 악함, 추함, 속됨, 흙탕물에 몸을 맡기니 독사와 갈충들이 우글거려 시인의 육신을 녹인다. 육신 없는 몸에 뛰는 심장! 최완규의 시 세계는 그믐밤 눈물과 구렁과 우박과 시든 꽃으로 가득하다. 표표망망 魂마저 갈 곳이 없다는 비유는 전쟁기 존엄을 잃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다. 그러나 뛰는 심장은 어쩔 것인가. 최완규의 절규는 인용한 「심장」처럼 계속된 절규인데 그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하동악의 시는 죽음의 시학이다. 「패수장」은 뱃가루를 바다에 뿌리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먼 길을 가는 「바람길」 또한 장례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殘命」은 벼이 죽고 나만 살아서 겪는 아픔을 담았다.

光明도 싫습니다

新鮮한 空器도 土壤도…

문을 닫고 안으로 고를 걸어 바깥 世相과 결별을 고한 다음 隱花植物처럼 어두운 꿈을 이루며 永遠한 時間을 누워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天井을 바라보다가 지치면 눈을 감아 버리면 됩니다 窒息이 오는 순간에는 壁이라도 차 넘길 두 발이 있지 않습니까⁶¹⁾

60) 최규완, 「心臟」 앞부분 절반 분량

은화식물이 된 이 시의 자아는 누워서 천정을 보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벽을 차 넘길 두 발은 최완규의 '심장'처럼 안타까움을 증폭시킨다. 주위의 온 사방이 아프고 죽어가고 죽는 현실 앞에 시인이 거들 수 없는 어린이와 거지와 죽은 친구와 질병과 어둠과 가난과 굶주림은 절박하다. 때문에 광명도 싫다고 말한다. 최완규와 하동악의 절규는 전쟁기 전주 지역 동인 시편에 깔린 주류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절망과 죽음의 시학인 최완규와 하동악의 노래가 우리에게 전사하는 예지는 '육신 없이 뛰는 심장'과 '벽을 차 넘길 두 발'이 상징하듯이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는 초월의 의지일 것이다. 절망을 노래하면서 순결을 붙들었고 죽음을 목도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그리워했다. 두 신인 작가가 걸어 올린 시어들은 초월 의지를 놓지 않았기에 순수하고 모던하다. 너털거리는 현실은 이들의 시 세계를 더욱 예민하게 부조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4. 결론

지금까지 전주 지역 문학 담론은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논구되어 왔다. 본고는 여기에 전주 지역 잡지 매체를 소개하여 지역 문학 양상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1950년대 초반 유실된 자료 속에서 그나마 실증이 가능한 몇 자료를 보태어 전쟁기 전주 지역 문학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고는 무엇보다 자료 발굴의 의미가 크다.

동인지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전쟁기 전주 지역에는 전북 태생의 문인들이 전란을 피하여 기거하면서 여러 동인 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문학예술의 가치를 지키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이철균이 발행한 『남풍』은 서정주와 신석정이 활약한 동인지이며 지역 대학교를 중심으로 『연비』와 『풍토예술』의 활동이 돋보였다. 20대를 중심으

61) 하동악, 「房」 전문

로 모인 아마추어 신인 작가들은 생명의 시 정신을 내세우며 열정적인 창작을 벌였다. 지속적인 발행물을 확인할 수 없어 아쉽다. 특히 『연비』는 가람 이병기와 신석정의 영향 아래 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전주고등학교 문예지 『풍토』에는 상당한 수준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신석정과 백양촌의 사사를 받은 풍토 동인들은 시적 담구를 역사적 사명으로 여긴 듯하다. 실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이들은 높은 시 세계의 구축이 개인과 사회의 활로를 개척한 유일한 출구라고 보고 생활을 버리면서까지 시 세계를 구축한 열의를 보여 주었다. 객관적으로 열악한 정세 속에서 이런 정도의 시적 성취를 이룬 것이 특이할 만하다. 전주 지역 전쟁기 문학 활동은 다양한 매체 이외에 동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동인지 형태로 발간된 잡지 매체를 통하여 전쟁기 전주 지역 문인들의 면모와 실제 창작물을 가늠하였다. 창작물의 대부분이 시 작품으로 고통스런 현실에서 시 세계를 회구함으로써 본래 예술이 목적하는 자기 정화와 사회 구원에 도달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전쟁 이후 1950년대 후반의 전주 지역 문단의 흐름을 살피고 여전히 소실되고 망각된 한국 지역 문학의 온당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본고의 후속 과제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남풍』 1집, 기산당, 1951.11.7, 1-20면.
『연비동인시집』, 화세프린트사, 1952.12.5., 1-75면..
『풍토』 1집, 풍토동인회, 1953.12.20., 1-59면.
『풍토』 2집, 전북교육주보사, 1954.11.25., 1-41면.
『풍토예술』, 풍토예술동인회, 1954.9.1., 1-26면.

2. 논저

- 군산시사편찬위원회 편, 『군산시사 하』, 군산시, 2000, 900면.
김영만, 「아쉬웠던 <現代>의 자진폐간」, 『잡지뉴스』, 한국잡지협회, 1996.
4, 34-38면.
백양촌, 「전북문단의 개관」, 『백양촌수필전집』, 대광문화사, 1989, 282-289면.
송기섭, 「해방기 대전충남 지역문학의 형성 양상」, 『한국민족문화』 54, 부산
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313-328면.
안도·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 편, 『전북문단 70년사(1945-2015)』, 신아출
판사, 2016.
오영식 편,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출판, 2009, 36-648면.
오하근, 『전북현대문학 상』, 신아출판사, 2010, 34-35면,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16권, 한국역사연구회,
1995.6, 371-372면.
이동순, 「광주전남 지역 근현대 시문단 형성사 연구 1」, 『현대문학이론연구』
5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362-367면.
이순욱, 「정전 체제의 형성과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 『지역과 역사』
32호, 부경역사연구소, 2014.4, 37-66면.
전주시사편찬위원회 편, 『전주시사』, 전주시, 1986, 1100-1109·1202면.
최명표 편, 『김해강시전집』, 국학자료원, 2006, 801-802면.

- 최명표, 「한국전쟁기 전북 지역 매체와 문학 -<전북일보>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89-119면.
-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 편, 『전북문학사』, 신아출판사, 1996, 264-270면.
- 한정호, 「한국전쟁기 마산의 문학매체와 『낙타』」, 『인문논총』 29,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15-135면.

【Abstracts】

A Study on the literary coterie magazine in Jeon-ju Region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 Focused on the 'Nampung', 'Yeonbi', 'Pungto', 'PungtoYesul' —

Ha Chae Hyun · Hwang Tae-mook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there were over 10 literary coterie magazines in Jeonju. But so far, no bronze paper has been found, so the exact aspects have not been confirmed. The original manuscript was introduced by exploring the 'Nampung', 'Yeonbi', 'Pungto', 'PungtoYesul' literary coterie magazines published in Jeonju.

This paper reveals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in the Jeonju area in the 1950s by reading its literary coterie magazines. The attempt is aimed at displaying the topography of Jeonju literature in the 1950s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the magazine part of Jeonju. As a follow-up,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literary circles in Jeonju since the 1950s and help form a fair discussion on local literature.

Key word: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Jeon-ju Region, literary coterie magazine, Nampung, Yeonbi, Pungto, PungtoYesul, local literature

이 논문은 2018년 2월 1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3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3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